

1.

창조와 파괴에 대한 시각은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제시문 (가)는 창조와 파괴가 개인과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바라보았다. 필자는 창조와 파괴를 순환적이라고 보았다. 일례로, 세계는 고요하다가도 저항적으로 바뀌며 저항적이다가도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온다고 보았다는 점이 이를 나타낸다.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필자는 자본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자본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오래된 것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자본가가 능동적으로 창조와 파괴를 행한다는 점은 (가)에서 필자가 주장한 창조와 파괴의 순환성과 확실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제시문 (다)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은 제시문 (나)와 유사한 관점에서 창조와 파괴를 바라보았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기존의 계급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며 부르주아 계급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해 이익을 창출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이 창조와 파괴를 이룬다는 점은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제시문 (다) 역시 제시문 (가)와 대조되는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또, 창조와 파괴에 대해서 (나)와 (다)는 모두 개인과 집단의 영향을 인정함과 동시에 창조와 파괴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를테면 제시문 (나)는 자본가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존의 것을 파괴한다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제시문 (다)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관념의 '해체'만을 창조로 간주하였다. 즉 부르주아가 노동자를 이해타산적으로 착취하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를 타파하려는 것은 일회적이라고 여긴 것이다.

2. 제시된 (라)의 그래프는 모두 창조와 파괴에 있어서 개인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가계 소득의 증감이나 시간당 생산량 및 실질 임금은 순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서 개인들의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차하위 20%~최상위 20%의 구간에서는 약 2%point 간극으로 비례의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최하위 20%가 최상위 20%보다 그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약간의 예외적인 현상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고려하자면 하위층보다는 최상위층이 창조를 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이 자본주의적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소득은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제시문 (라)의 그림 <2> 에서 심하된다. 차상위 20%~최상위 20%간의 급격한 증가율은 약간의 예외적인 현상일수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가 비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는 (라)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경쟁력은 지속적 창조를 창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나) 제시문 시각의 타당성은 <그림3>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 시간당 '생산'량은 자본가 즉, 부르주아 계급을 나타내며 시간당 실질 '임금'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간당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창조가 지속적임을 시사한다. 또 그에 따른 실질임금의 증가도 계속된다는 점은 제시문 (라)의 관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만일 제시문 (라)의 입장이 타당했다면 시간당 생산량은 증가하더라도 시간당 실질임금은 그대로거나 심지어는 감소했을 것이다. (라)에 따르면 지배계급인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시간당 생산량의 증가 폭이 시간당 실질임금의 증가폭보다 크다는 점은 그림 <1>과 <2>에서 나타난 바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더많은 창조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수록 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